

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['23. 3월]

– 국제원자재 가격, 당분간 방향성 탐색국면 예상 –

오정석 | 전문위원(3705-6231)

동향

- [원자재지수] 2월 S&P GSCI는 4개월 연속 하락. 축산물을 제외한 전부문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그동안 견조하게 상승했던 산업용 금속과 귀금속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
 - 부문별로 에너지 -3.1%, 농산물 -5.7%, 산업금속 -7.9%, 귀금속 -6.1%, 축산물 +1.3% 등
 - 2월말까지 누적 상승률, S&P 에너지 -6.4%, 농산물 -5.0%, 산업금속 +0.1%, 귀금속 -0.7%
- [품목별] WTI -2.3%, 美 천연가스 +2.3%, 유럽천연가스 -20.4%, 亞 휘발유 -2.4%, 옥수수 -7.4%, 소맥 -9.2%, 대두 -3.1%, 구리 -2.8%, 알루미늄 -10.2%, 금 -5.3% 등
 -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 이상고온, 충분한 재고 등으로 작년 12월초 이후 -69%.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약세는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, 강달러, 차익매물 등에 기인

주요 이슈 및 전망

- [원유] 국제유가는 비수기 진입, 재고 증가 등 하방요인과 중국 등 아시아 수요 기대감, 지정학적 불안 등 상방요인이 엇갈리고 있어 작년 12월 이후의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
 - 아시아 수요가 견조*한 가운데 주요 기관들이 금년 세계 원유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국제유가는 박스권 국면이 종료되면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
 - *아시아 1월 원유수입은 일일 2,913만배럴(전월비 +11.1%)로 역대 최고치 기록(Refinitive)
- [곡물] 남미 공급 우려가 잔존해 있으나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국제곡물가격은 북반구 파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
 -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협정의 연장 협상이 시작되면 곡물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. 연장이 불발될 경우 단기적으로 큰 폭의 반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
- [비철금속]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과 달러화 움직임 등 펀더멘탈 외 요인의 영향으로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
 - 주요 거래소 재고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, 中·美·印尼發 주요 품목의 공급차질 우려도 제기된 만큼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유지될 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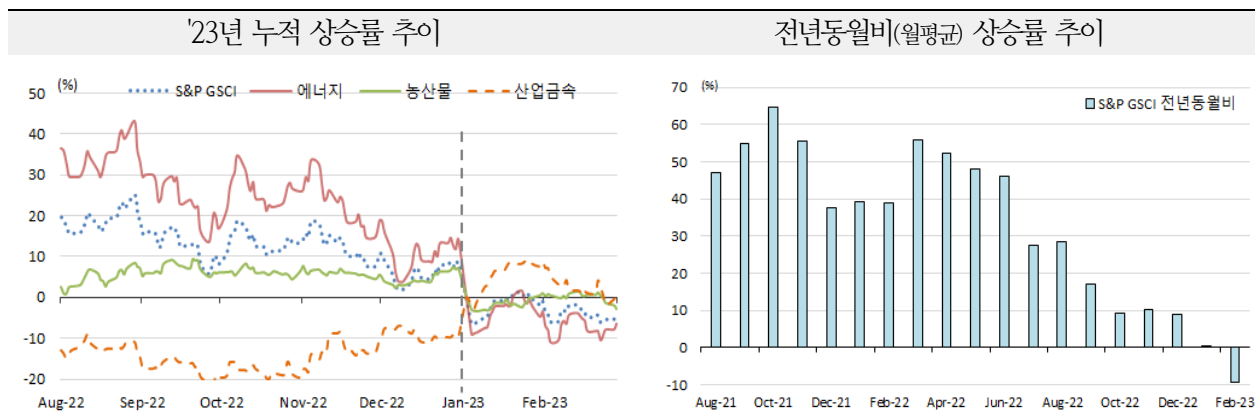
1. 국제원자재 가격지수

□ S&P GSCI 추이

- 2월 S&P GSCI 4개월 연속 하락. 축산물을 제외한 전부분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그동안 견조하게 상승했던 산업용 금속과 귀금속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지수	1월말	2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동월말비(%)
S&P GSCI*	606.06	581.87	-4.0	-4.6	-13.5
에너지	278.19	269.54	-3.1	-6.4	-15.7
농산물	474.15	447.04	-5.7	-5.0	-12.5
산업금속	490.56	451.73	-7.9	0.1	-17.5
귀금속	2534.50	2378.66	-6.1	-0.7	-4.4
축산물	362.04	366.91	1.3	2.7	6.3

* WTI, 美천연가스, 소맥, 옥수수, 원당, 구리, 니켈, 금 등 24개 품목 선물가격으로 구성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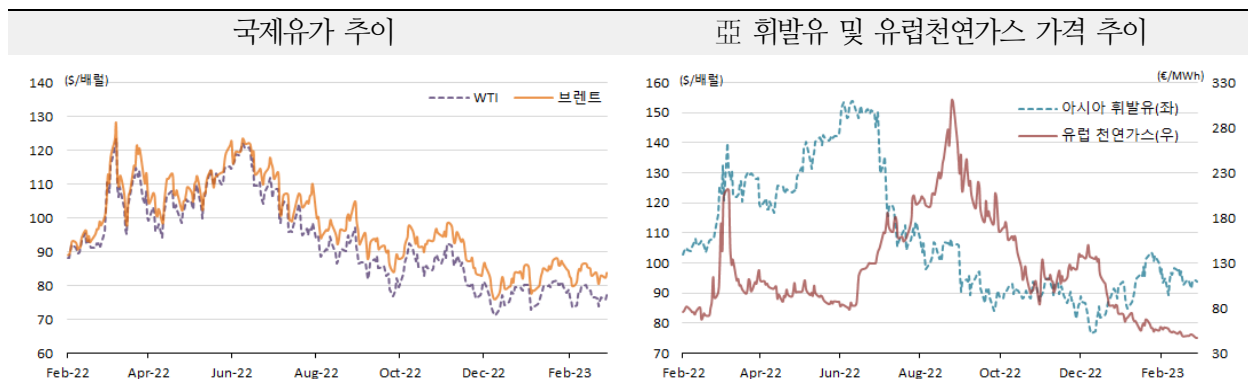
2. 원유

□ [2월 시황] WTI 전월말 대비 -2.3%, 2월 휘발유 -2.4%, 유럽 천연가스 -20.4%

- 국제유가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긴축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 약세를 지속. 전체적으로는 작년 12월 이후 \$71~86 박스권 유지
-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난방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큰 폭의 약세를 지속(작년 12월초 이후 -69%). 2월 휘발유 가격도 수요 불확실성으로 한 달 만에 하락

품목	1월말	2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WTI(\$)	78.87	77.05	-2.3	-4.0	-19.5	94.33	77.53
브렌트(\$)	84.49	83.89	-0.7	-2.4	-16.9	99.04	83.78
두바이(\$)	79.32	81.30	2.5	3.4	-16.2	97.03	80.59
美휘발유(\$)	106.83	102.24	-4.3	-1.0	-13.0	124.67	103.18
亞휘발유(\$)	96.09	93.82	-2.4	1.5	-19.3	109.73	95.04
美천연가스(\$)	2.684	2.747	2.3	-38.6	-37.6	6.542	2,943
유럽천연가스(€)	59.00	46.98	-20.4	-36.5	-52.2	132.34	57.81

주 : NYMEX-ICE 선물가격 기준(유럽천연가스는 네덜란드 TTF). 단 두바이유, 亞휘발유(Ron 92 기준)는 현물가격. 자료 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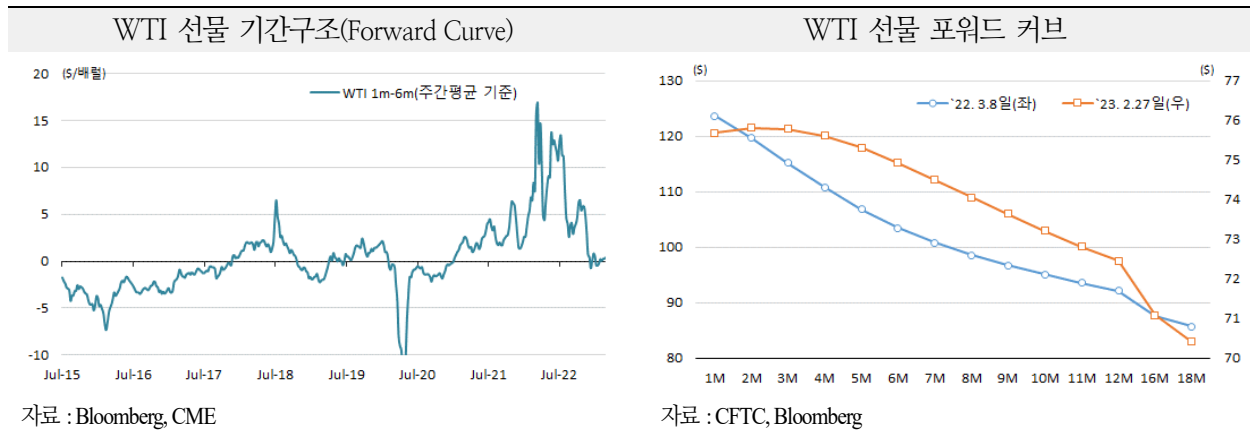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C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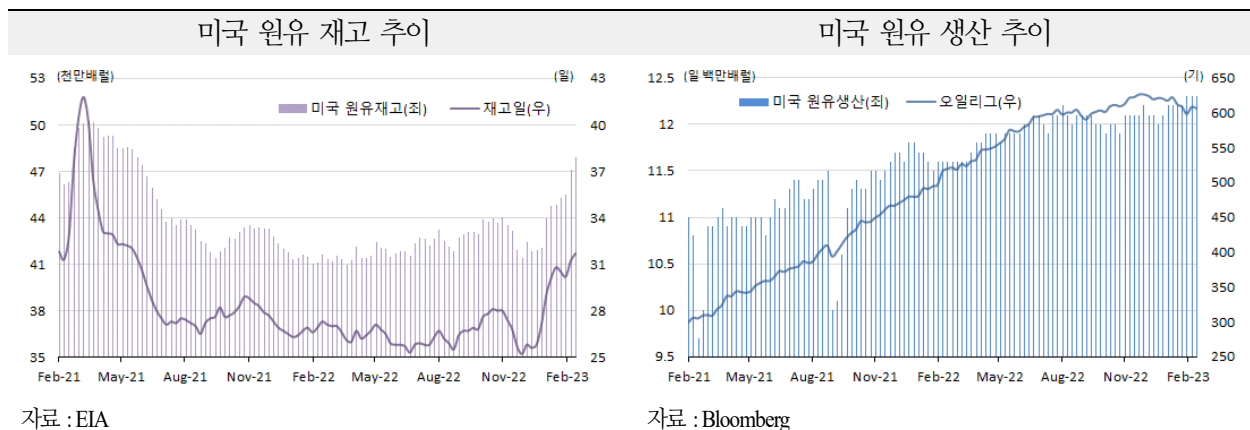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□ 주요 원유 선물시장 및 실물 지표 점검

- WTI 선물시장 지표 : 중장기물 중심 약한 백워데이션 지속
 - WTI 1~3개월물은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낮은 콘탱고, 이후 월물들은 약한 백워데이션 지속. 이는 단기적으로 수요 불확실성,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기대를 반영
 - 한편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는 ION Cleared Derivatives에 대한 해킹 공격을 이유로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 데이터를 3월 중순으로 연기



- 미국 실물지표 : 원유 및 휘발유 재고 큰 폭 증가, 원유생산 소폭 증가, 수요 부진 등
 - 원유재고는 2.24일 4.80억배럴로 한 달 전보다 7% 증가하며 21개월래 최고치, 5년 평균에 비해서도 +6.8%. 휘발유 재고 역시 2.39억배럴로 1년래 최고치 수준
 - 원유생산은 2.24일 일일 1,230만배럴로 한 달 전보다 10만배럴 늘어나며 '20년 3월 수준을 회복. 원유수요는 일일 2,012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-8%



- OPEC 및 중국 지표 : 사우디 OSP(對亞 3월 인도분) 상향, 금년 중국 수입 역대 최고 예상
 - 중국의 금년 원유수입은 리오프닝에 따른 운송용 연료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일일 50~100만배럴 늘어난 1,180만배럴 내외로 예상(Wood Mackenzie)

	11월	12월	1월	비고
OPEC생산(일 백만배럴)*	28.86	28.93	28.88	• 사우디, 이라크, 이란 등 감산 영향
사우디 생산*	10.47	10.48	10.32	• 연말까지 감산기조 유지 시사
사우디 OSP(對亞)**	\$3.3(1월인도)	\$1.8(2월인도)	\$2(3월인도)	• 중국 등 수요회복 기대로 6개월래 첫 인상
중국 원유수입(백만톤)**	46.74	48.07	-	• 춘절 연휴로 1월에는 수입 감소 추정

주 :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두바이유/오만유 대비 프리미엄을 의미. 자료 : *OPEC, **Bloomberg

□ [이달의 관전포인트] 아시아 수입, 러시아 감산, 미국 SPR 방출, 연준 긴축 기조 등

- 아시아 1월 원유수입, 중국의 감소(추정)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 기록
 - 1월 수입은 일일 2,913만배럴로 전월 대비 11.1%(+291만배럴) 증가. 중국 수입이 3.4% 감소했으나 인도(10.7%), 한국(+9.1%), 싱가포르(+81%)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(Refinitive)
 - OPEC은 1월 보고서에서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전월보다 일일 10만배럴 상향조정하고,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가 수요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
- 러시아,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감산 및 수출 축소로 대응
 - 러시아는 서방의 자국산 유가 상한제 시행에 맞서 3월 중 생산량을 일일 50만배럴(러시아 생산량의 5%) 감축하고, 수출량도 전월 보다 25% 감축할 계획
 - 러시아는 작년부터 수출 대상국을 중국과 인도 등으로 재편하고 있는데, 유럽행 등 기존 수출물량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감산을 결정했다는 의견도 제기
- 미국 전략비축유(SPR) 추가 방출 결정은 양날의 검
 - 금년 4~6월 중 2,600만배럴(일일 28만배럴 규모)을 방출할 계획. 이는 예산법의 의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긴급방출(1.8억배럴)과는 다른 조치
 - SPR 방출은 글로벌 수급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, SPR이 최근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여 돌발사태 발생 시 완충장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부담 요인
-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연준 최종 금리 상향 가능성
 - 고용-물가-소비 등 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준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5% 중반으로 상향되는 분위기. 이는 위험선호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

□ [전망] 국제유가는 비수기 진입, 재고 증가 등 하방요인과 중국 등 아시아 수요 기대감, 지정학적 불안 등 상방요인이 엇갈리고 있어 작년 12월 이후의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

- 아시아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주요 기관들이 금년 세계 원유수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국제유가는 박스권 국면이 종료되면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(\$/배럴)〉

	2월(a) ¹⁾	'23.1Q(f) ²⁾	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
WTI	76.86	78.8(-0.7)	82(-)	82(+1)	85(+1.7)
브렌트	83.54	85(-0.5)	88(-)	87.5(+2)	90(+3.7)

주. 1) 2월 평균값 2) 2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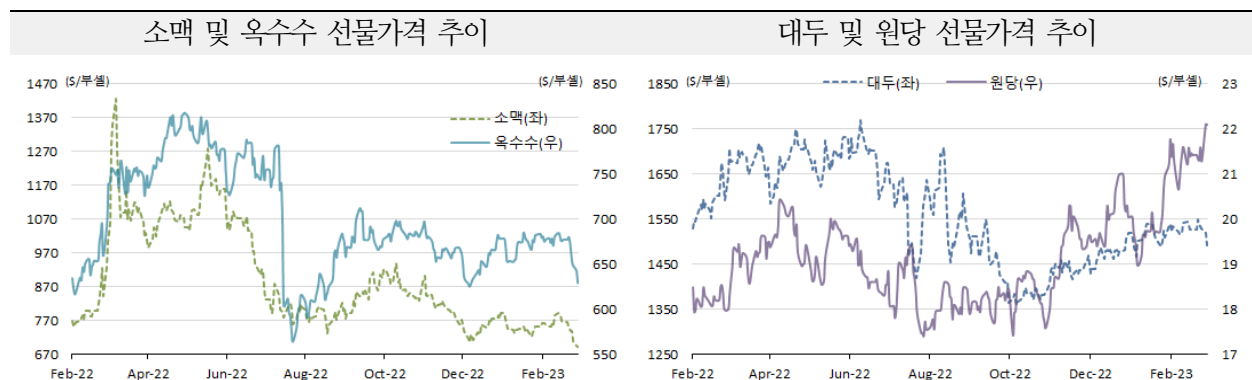
3. 곡물

□ [2월 시황] CBOT 소맥 전월 대비 -9.2%, 옥수수 -7.4%, 대두 -3.1%, 원당 +1.5%

- 소맥은 미국 등의 공급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하락. 옥수수는 미국의 재배면적 확대 전망이 아르헨티나 가뭄 피해 우려를 상쇄
- 대두는 아르헨티나 수확량 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월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차익매물과 달러강세 등으로 월 후반 하락 전환. 원당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

품목	1월말	2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소맥(cents/부셸)	761.25	691.50	-9.2	-12.7	-25.5	901.67	748.12
옥수수(cents/부셸)	679.75	629.50	-7.4	-7.2	-9.7	693.89	670.73
대두(cents/부셸)	1538.00	1490.50	-3.1	-1.9	-9.4	1,550.66	1,518.65
쌀(\$/cwt)	17.83	16.97	-4.8	-6.0	10.4	16.51	17.71
원당(cents/파운드)	21.76	22.08	1.5	10.2	22.7	18.82	20.66

주 : CBOT·ICE 선물가격 기준. 부셸은 27.2kg, cwt는 45.4kg. 자료 : Bloomberg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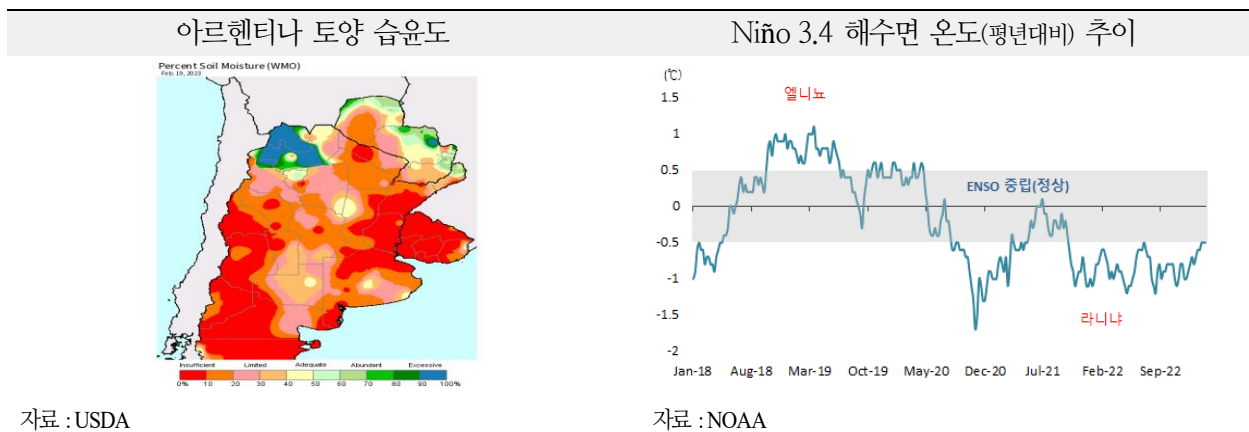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, CBOT

자료 : Bloomberg, CBOT, ICE

□ 세계 곡물시장 주요 지표 점검

- 남미 작황 : 브라질 대두 수확 및 2기작 옥수수 파종 부진, 아르헨티나 가뭄 피해 심화
 - 브라질 대두 수확률은 강우의 영향으로 2월 중순 25%로 작년동기(33%) 보다 느리게 진행. 2기작 옥수수(총 생산량의 75%) 파종률도 40%로 작년동기(53%)를 하회
 - 아르헨티나 옥수수의 양호 및 우수 등급(good to excellent ratings) 비율은 2월 중순 9%, 대두는 3%에 불과. 대두 재배지역의 가뭄비율이 71%에 달해 작황 개선은 기대난
 - 미국 겨울밀의 양호 및 우수 등급은 2월초 주산지인 캔자스 21%, 오클라호마 17% 등 역대 최악의 수준. 가뭄이 해소되지 않는 한 등급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

- 농업기상여건 : 아르헨티나 강우 불규 가뭄 지속, 美 겨울밀 지역 가뭄 완화, 엘니뇨 예고
 - 아르헨티나는 2월 중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렸으나 가뭄 완화에 역부족이었으며, 월 중반에는 냉해가 발생하는 등 농업기상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
 - 미국 핵심 겨울밀 재배지역인 High Plains의 가뭄비율은 2.21일 81.7%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작년 11월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(US Drought Monitor)
 - 적도 지역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최근 평년 대비 -0.5°C 로 상승하며 3년째 이어온 라니냐가 종료되는 수순. 하반기에는 $+0.5^{\circ}\text{C}$ 이상 상승하는 엘니뇨 발생 가능성(NOAA)



- 세계 곡물수급 : '22/'23년 세계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전망 하향조정, 소맥은 상향
 - 옥수수 및 대두 생산 전망의 하향조정은 아르헨티나 작황 악화에 주로 기인. 소맥 생산 상향조정은 호주와 러시아의 작황 호조에 기인

<세계 곡물수급 전망(억톤)>

	'21/22	'22/23		전년비	전월비		'21/22	'22/23		전년비	전월비
		1월	2월					1월	2월		
곡물						소맥					
생산	27.96	27.31	27.30	-2.4%	-0.04%	생산	7.79	7.81	7.84	+0.6%	+0.3%
소비	28.04	27.63	27.63	-1.5%	+0.01%	소비	7.93	7.90	7.91	-0.2%	+0.2%
기말재고	7.94	7.61	7.60	-4.2%	-0.1%	기말재고	2.77	2.68	2.69	-2.7%	+0.4%
재고율	28.3%	27.5%	27.5%	-0.8%p	-	재고율	34.9%	34.0%	34.0%	-0.9%p	-
옥수수						대두					
생산	12.16	11.56	11.51	-5.3%	-0.4%	생산	3.58	3.88	3.83	+7.0%	-1.3%
소비	12.03	11.65	11.62	-3.3%	-0.3%	소비	3.62	3.79	3.76	+3.9%	-0.8%
기말재고	3.06	2.96	2.95	-3.6%	-0.4%	기말재고	0.99	1.04	1.02	+3.2%	-1.4%
재고율	25.5%	25.4%	25.4%	-0.1%p	-	재고율	27.3%	27.3%	27.1%	-0.2%p	-0.2%p

자료: USDA WASDE('23.2월)

□ [이달의 관전포인트] 브라질 생산 전망, 美 재배면적 전망, 러시아 저가수출 공세 등

- 브라질 대두 생산 전망 상향조정, 옥수수는 하향조정
 - 브라질 곡물공급공사(CONAB)는 금년 대두 생산 전망을 역대 최고치인 1.53억톤으로 상향(전월 대비 +17.7만톤). 옥수수 전망은 2기작의 파종지연으로 132만톤 하향조정
 - 다만, 옥수수 수출 전망은 중국향의 증가로 4,700만톤으로 2백만톤 상향. 일부에서는 브라질이 미국을 제치고 금년 옥수수 수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
- 미국의 금년 옥수수 재배면적 사상 최대 가능성
 - '23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9,050만 에이커로 전년 대비 +2.2%, 대두 재배면적은 +0.6%로 예상(S&P Global Commodity Insight). 작년 하반기 이후 비료가격의 하락 등으로 옥수수의 생산비용이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평가(Reuters)
 - ※대두와 옥수수는 파종지역이 겹치며, 옥수수가 대두에 비해 비료를 더 많이 사용
 - 한편 겨울밀의 파종면적은 11% 증가하며 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파종지연, 가뭄 등으로 수율(yield, 단위 면적당 생산량)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
- 러시아,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소맥 수출 확대.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협정은 종료 임박
 - 작황 호조에 힘입어 1월 소맥 수출은 370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40만톤 증가. 특히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향이 큰 폭으로 증가(Sovecon)
 - 우크라이나 곡물수출이 감소(12월 370만톤→1월 3백만톤→2월 중순 150만톤)하는 가운데 3.19일 종료되는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협정의 연장이 아직까지 미결정. 협정 연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

□ [전망] 남미 공급 우려가 잔존해 있으나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국제곡물가격은 북반구 파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

- 우크라이나 곡물수출협정의 연장 협상이 시작되면 곡물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. 연장이 불발될 경우 단기적으로 큰 폭의 반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곡물 전망(cents/부셸)〉

	2월(a) ¹⁾	'23.1Q(f) ²⁾	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
소맥	751.80	746(+16)	730(-)	733(-)	741(-)
옥수수	671.09	675(+20)	659(+15)	622(-)	616(+11)
대두	1,527.61	1,450(+25)	1,415(+35)	1,368(+38)	1,333(-12)

주: 1) 2월 평균값 2) 2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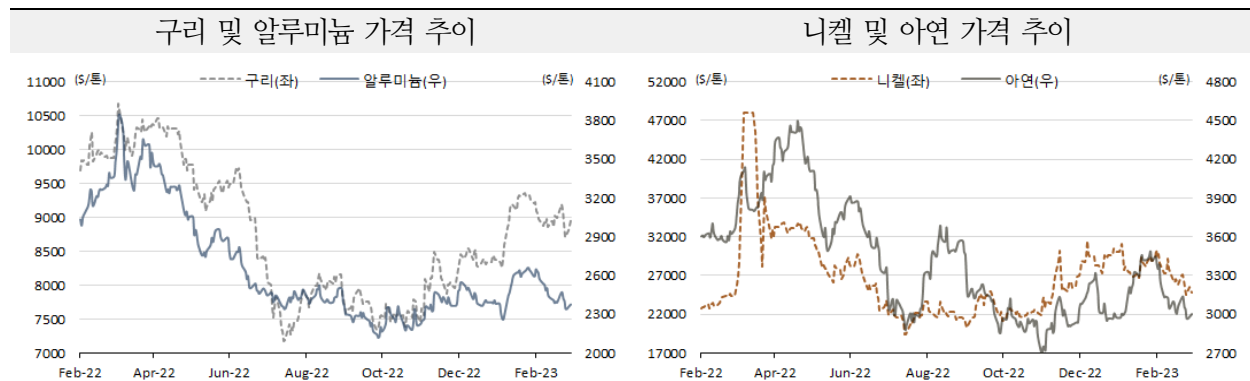
4. 비철금속

□ [2월 현황] LME 구리 가격 전월말 대비 -2.8%, 알루미늄 -10.2%, 니켈 -18.3% 등

- 美 물가지표의 예상 상회로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달러화 강세,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 약세요인이 부각되며 지난해 11월 이후의 강세 행진에 제동
- 알루미늄 가격은 재고 증가 등으로 연초 수준을 하회, 니켈은 공급증가 기대감으로 작년 11월 초 수준으로 하락. 아연(-11.5%)과 주석(-15.4%)도 두 자릿 수 하락률 기록

품목	1월말	2월말	전월말비(%)	연간(%)	전년 동월말비(%)	평균가격	
						'22.	'23.(ytd)
구리(\$/톤)	9,223	8,961	-2.8	7.0	-9.3	8,788.4	9,009.8
알루미늄(\$/톤)	2,644	2,373	-10.2	-0.2	-29.6	2,710.9	2,495.1
니켈(\$/톤)	30,344	24,794	-18.3	-17.5	2.1	25,617.5	27,684.0
아연(\$/톤)	3,389	3,000.5	-11.5	0.9	-18.2	3,439.6	3,199.4
납(\$/톤)	2,137	2,104	-1.5	-8.2	-11.9	2,144.6	2,144.3
금(\$/온스)	1,928.36	1,826.92	-5.3	0.2	-4.3	1,802.5	1,878.5
철광석(\$/톤)	117.87	116.87	-0.8	4.6	-7.4	112.9	115.2

주 : 철광석은 호주산 중국 북부행 순도 62% 기준. 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, LME

자료 : Bloomberg, L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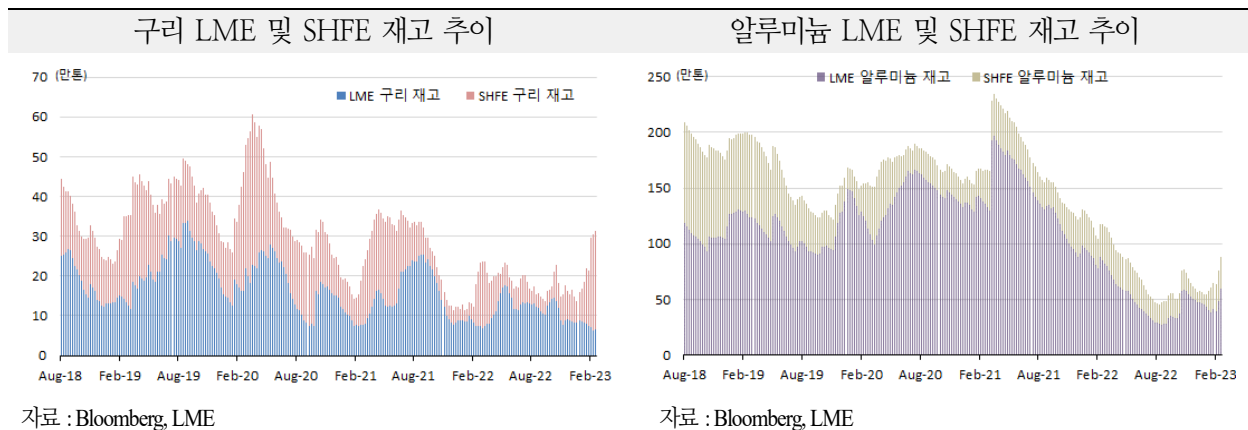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지표 점검

- 중국 경기 : 제조업지수 기준선(50) 상회,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 등

	12월	1월	2월	비고
차이신 PMI	49.0	49.2	51.6	• 확장국면 전환. 리오프닝 효과로 평가
산업생산(% yoy)	1.8%	-	-	• 1~2월 지표 3월 중 발표
기준 주택가격(% mom)	-0.41%	-0.28%	-	• 하락세 둔화. 베이징 등 1선 도시는 반등

자료 : Bloomberg

- 거래소 재고 : 상해거래소(SHFE) 재고 큰 폭 증가, LME에서는 알루미늄 재고 증가
 - SHFE 구리 재고는 2.24일 25.2만톤으로 한 달 전 대비 11.2만톤(+80%) 증가. 같은 기간 중 아연 +173%, 알루미늄 +31%, 니켈 +13%. 이로 인해 中 수요 불확실성 제거
 - LME 알루미늄 재고도 14.8만톤(+36%) 증가하여 양 거래소 합산 재고는 '22년 5월 이후 최고치. LME 구리 재고는 감소했으나 합산 재고는 '21년 9월 이후 최고치



- LME 비철금속 선물의 금융 순포지션 : 차익실현 등으로 전월말에 비해 금융자금 유출
 - 구리 선물의 금융투자자 순포지션은 작년 10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.24일에는 2.6만계약으로 전월말 대비 20% 감소. 알루미늄과 아연의 순포지션은 -76%, -49%
 -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평가

□ [이달의 관전포인트] 中 부동산 경기, 美·中 알루미늄 관련 이슈, 인니 구리광산 관련 등

- 중국 부동산시장 회복 가능성은 비철금속 수요에 긍정적
 - 기존주택 가격은 1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베이징·상하이 등 1선 도시의 경우 5개월 만에 반등했으며, 5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량도 2월 들어 증가.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양책과 리오프닝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 예상
 - 중국 건설업은 전체 구리 및 알루미늄 수요의 20~30%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비철금속 수요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
- 미국,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. 중국, 국내 생산 감축 명령
 - 미국은 3.10일부터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 200% 관세를 부과할 방침. 이는 수입 차단을 통해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, 미국이 대체 공급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알루미늄 공급에 혼란이 발생할 소지

- 중국 알루미늄 생산허브인 윈난성(중국내 4위 생산지역)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력 발전량 감소로 작년 9월부터 감산에 돌입했으며, 전월 추가 감산을 명령. 가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또다른 감산 명령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(Citi)
- 인도네시아 Grasberg 광산(세계 2위 구리광산) 가동 중단
 - Grasberg 광산은 전월 중 홍수 및 산사태 등으로 가동을 중단했으며, 정확한 재가동 시점을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. 운영사인 Freeport-McMoRan社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1분기 구리 판매 전망을 하향조정
- [전망] 중국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급여건은 제약적인 것으로 평가되나, 비철금속 가격은 당분간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항방과 달러화 움직임 등 펀더멘탈 외 요인의 영향으로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
- 주요 거래소 재고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, 중국·미국·인도네시아 등 주요 비철금속의 공급차질 우려도 제기된 만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전망

〈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 비철금속 전망(\$/톤)〉

	2월(a) ¹⁾	23.1Q(f) ²⁾	2Q(f) ²⁾	3Q(f) ²⁾	4Q(f) ²⁾
구리	8,962.0	8,675(+300)	8,588(+188)	8,613(+113)	8,800(+300)
알루미늄	2,454.7	2,470(+151)	2,438(+13)	2,513(+2)	2,557(+19)
니켈	26,937.5	27,500(-)	25,568(+38)	23,525(+25)	23,930(+680)
아연	3,105.2	3,103(-2)	3,050(-)	3,125(+75)	3,300(+100)

주: 1) 2월 평균값 2) 2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(median), ()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. 자료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31 혹은 jsch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